

옷의 힘

—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



07 일본에서, 세계에서,
옷이 할 수 있는 일

MADE FOR ALL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옷의 힘

07

일본에서, 세계에서, 옷이 할 수 있는 일

표지 사진:
유니클로의 옷을 입은 잠비아의 여자

※표지와 P13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카미오카 신스케 씨의
르포가 P15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CONTENTS

- 03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지원활동
- 06 안 입으시는 옷,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08 유니클로의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
- 10 정말로 필요한 옷을 전달하기 위하여
중요한 ‘분류작업’
- 12 엄마와 아이의 몸을 지키는 옷 ‘잠비아의
농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 14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의 궤적
이제까지의 길, 그리고, 앞으로의 길
- 15 PHOTOGRAPHER'S REPORT
카미오카 신스케

‘옷의 힘’은 한국어판, 일본어판, 영어판을 발행하며,
유니클로 매장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재고 소진시 종료).
아래의 WEB 사이트에서는 최신호와 과월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사진은 지난 달 호인 vol.06).



www.uniqlo.com/kr/csr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지원활동

이번 동일본 대지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많은 분들께 삼가 애도를 표하며, 아울러 피해지역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니클로에서는 매장에서의 모금활동과 매출액의 일부를 의연금, 지원금으로 기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금은 일본 적십자사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사용됩니다. 많은 분들의 따뜻한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옷’을 기획, 생산, 판매하는 회사로서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연금, 지원금과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의류의 기증은 물론, 종업원 자원봉사자에 의한 직접 배포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배포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피해지역의 상황과 수요에 맞추어, 남녀·사이즈별로 세트를 만들어, 주로 피난소에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배포 활동을 하면서 단지 옷을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게 되었고, 정말로 필요한 옷을 전달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자위대가 운영하는 공중목욕탕 앞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남녀·사이즈·아이템별로 구분한 옷상자를 두고, 보통 쇼핑할 때처럼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를 수 있도록 배포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히트택과 후리스 등 방한복이 중심이었지만, ‘갈아입을 속옷이 없다’ ‘물이 안 나와 빨래를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접수되어, 내의와 양말, T셔츠 등 위생과 관련한 상품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계절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옷’을 전달해 왔습니다.

옷을 받으신 분들로부터는 ‘유니클로의 쇼핑백도 있고, 마치 매장에 온 것 같다’, ‘오랜만에 쇼핑하는 기분을 맛보았다’, ‘내의와 양말이 없었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저희들은 옷이 갖는 힘과 옷의 소중함을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정말로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전달한다. 옷을 생산·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사회에 대하여 수행해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옷이 가진 힘의 모든 가능성을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관한 경과보고

(2011년 5월 24일 현재)

여러분의 따뜻한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매장에서서 모금

전세계 약 2,200개의 매장에 모금함을 설치했습니다. 4월 말 현재의 합계액은 217,786,572엔입니다. 일본 및 각국의 적십자 등을 통하여 피해지역의 복구 지원에 쓰입니다.

매출액의 일부를 기증

•일본 국내의 유니클로에서 상품 1점당 매출액에서 100엔을 기부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일과 대상상품을 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일	대상상품	의연금
4월 9, 10일	드라이 컬러 T셔츠	26,790,000엔
4월 23일~5월 8일	폴로셔츠	205,478,500엔
자금 총액		232,268,500엔

상기 금액 중 227,268,500엔을 '모모·카키 육영회 동일본 대지진 고아 육영자금'(*)에 기부하고, 5,000,000엔을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건축가 안도 타다오 씨가 실행위원장이 되어 설립. 패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타다시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도 발기인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부터 피해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별 구제 지원 정보 사이트 'SAVE JAPAN!'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 사이트의 지원기업인 콘데나스트 그룹이 발행하는 잡지 "VOGUE JAPAN", "GQ JAPAN"의 캠페인에 따라, 세계적인 저명인의 응원 메시지 T셔츠 'SAVE JAPAN! UT'를 6월 25일부터 전세계의 유니클로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상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판매종료).

이 T셔츠의 판매 수익 약 1억 엔은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으로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합니다.

지원의류 기증

생활에 꼭 필요한 내의류를 중심으로, 85만 점(약 7억 엔 상당)을 기증.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종업원 120명이 현지에 가서, NPO와 협력하며 배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 미야기현 47만 점 발송(3월 20일, 26일, 4월 3일,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 실시)
- 후쿠시마현 30만 점 발송(3월 20일, 4월 3일 실시)
- 이와테현 5만 점 발송(3월 22일, 4월 9일, 10일, 16일, 17일, 23일, 24일 실시)
- 이바라키현 3만 점 발송(3월 25일 실시)

거래기업으로부터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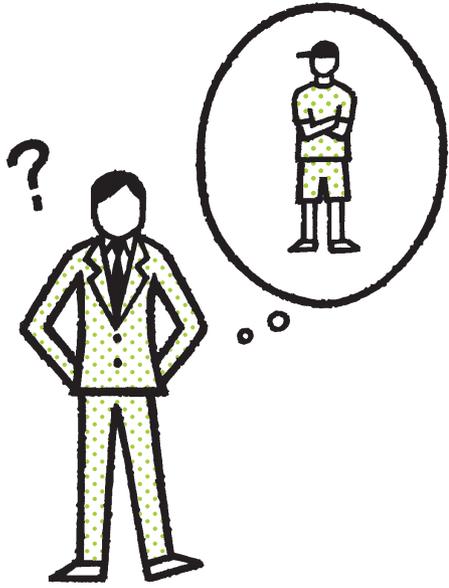
의연금: 합계 1억 3,000만 엔

지원물자: 담요 등 20만 장

의연금 기부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 2억 엔, 전세계의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 종업원이 약 1억 8,000만 엔, 야나이 타다시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이 10억 엔의 의연금을, 일본 적십자사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패스트 리테일링 그룹이 1억 엔을 복구지원활동에 노력하는 NPO 단체 등에 기부했습니다.





case #01

사회인이 되고 나니 자주 입는 옷도 바뀌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생활 스타일이 바뀌고 나니 옷 취향도 바뀐 것 같다. 마음은 물론, 복장도 사회인답게 바뀌어야겠다. 옷장을 정리하고 싶은데.

case #03

옷이 너무 좋아!
하지만 옷장에 다 안 들어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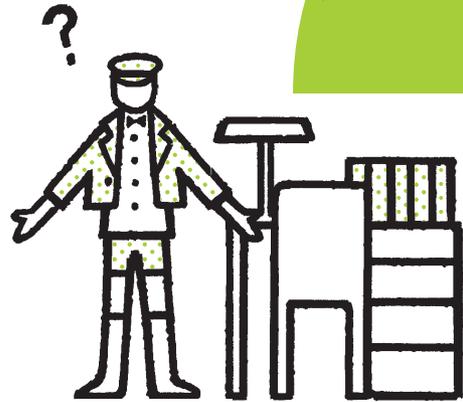
몇 년 전에 유행한 옷. 언젠가 다시 입으려고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지만, 조만간 옷장이 터져버릴 지경. 추억이 담겨 있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옷이라서 그냥 버리기는 마음이 아파.



case #02

키가 자라니까, 이런?!
기장이 짧아졌어!

갑자기 키가 자라서 소매나 옷길이가 덜름한 것이 신경 쓰이네.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었는데 아깝다.



case #04

계절 옷을 정리할 때,
옷장 정리도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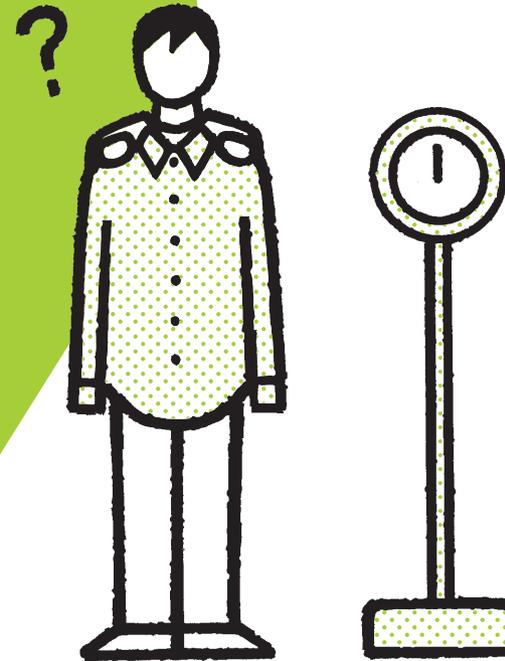
계절 옷을 정리하기 위하여 옷장 속을 정리하다가, 최근에 입지 않는 옷을 발견 했다. 이대로 옷장 속에 재워두자니 아깝고...



case #05

체형이 변해 옷
사이즈도 바뀌었다.
이제까지 입던
옷은 어떡하지?

체형이 변해 입을 수 없는 옷. 그리 많이 입지도 않았고, 사이즈만 맞으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깝지만 버릴 수 밖에 없나?



안 입으시는 옷,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 취향이 바뀌어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처분하실 생각이시면 잠깐! 아직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유니클로의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

유니클로의 연간 총생산수는 약 6억 점. 저희들은 고객이 안 입게 된 옷을 회수하여, 그 옷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지 않는 유니클로의 옷은 가정에서 세탁하신 후에 매장에 가져다 주십시오. 일본·한국의 모든 매장에서는 1년 내내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g.u.의 매장에서 회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고객으로부터 기증 받은 옷의 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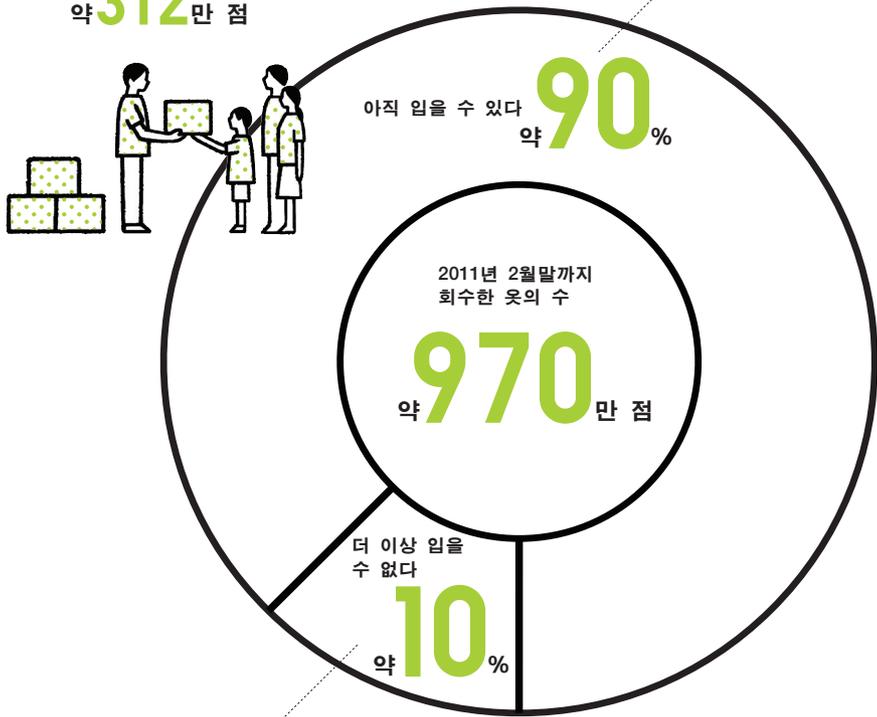
① 아직 입을 수 있는 옷과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을 분류한다

점포에서 회수한 옷은 우선 '아직 입을 수 있는 옷'과 '이제 입을 수 없는 옷'으로 분류. 회수한 옷 중 약 90%를 차지하는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은 옷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한 분류 공정을 거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다시 한 번 입을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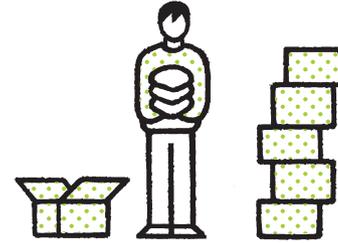
아직 입을 수 있는 옷은 옷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옷을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지금까지 기증수
약 **312**만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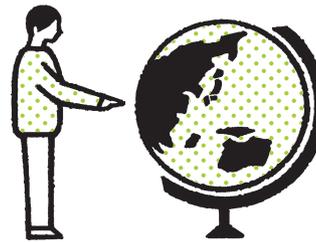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난다

더 이상 입을 수 없는 옷은 섬유소재로서 재활용. 주로 공장 등에서 기계의 기름을 닦을 때 사용되는 기름 걸레로 다시 태어나, 마지막까지 활용됩니다. 여러 번 세탁하고 오랫동안 사용한 옷감은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리사이클로 회수한 옷은 기름 걸레로 쓰기에 최적의 소재입니다.



② 12종류로 분류 >>P1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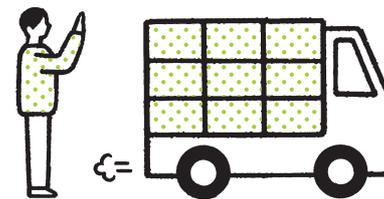
계절과 남녀, 아이템, 사이즈별로 세세하게 분류. 한 점 한 점 확인하고, 신속 정확하게 분류하는 작업은 숙련된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10-11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③ 보낼 곳, 보낼 옷을 정한다

어느 나라가 지금 정말로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현지의 기후는 어떤지? 문화와 종교적인 면에서 배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등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옷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전 수요 조사는 필수. UNHCR(※) 및 각국의 협력기관과 함께 보낼 곳과 보낼 옷을 정합니다.

※UNHCR(유엔난민기구): 난민·피난민을 국제적으로 보호·지원하고, 난민문제의 해결에 노력하는 유엔 기관. 1954년과 198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 2011년 2월, 패스트 리테일링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



④ 확실하게 전달하고 확인한다

중요한 것은 발송한 의류가 운반 중에 분실되거나 팔리거나 하는 일 없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것. 유니클로에서는 종업원이 직접 현지에 가서 배포하는 등, 의류가 확실히 전달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현지의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있습니다.



⑤ 다시 한 번 입을 >>P12-13 수 있도록

약 3,600만 명으로 알려진 전세계의 난민·피난민들에게, 한 사람에게 한 벌씩 전달하는 것이 목표. 또한, 난민캠프 이외에도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에 배포를 실시. P12-13에는 잠비아에 있는 임산부 진료소에서의 배포에 관한 보고를 실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옷을 전달하기 위하여 중요한 '분류작업'

정말로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옷을 전달하고, 그 분들이 곧바로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옷을 분류하는 작업은 필수적인 공정의 하나입니다.

우선 '입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

'옷'은 '옷'의 상태로 활용하고, 의류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남김없이 활용한다는 것이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옷을 받아서 실제로 입을 분들의 사정과 수요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그 분들이 기분 좋게 활용할 수 있는 옷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부된 많은 옷을 분류하고, 정리

하고, 전달할 때 우선 '입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사전 분류가 필요한 이유

옷을 분류하는 것은 실은 아주 힘든 작업입니다. 한 점 한 점의 옷은 얇고 가볍지만, 대량이 되면 그 부피와 무게가 상당합니다. 더구나 이 작업은 기계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옷의 종류와 크기, 소재, 옷의 낡은 정도와 청결상태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분류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생활조건이 열악한 난민캠프 등에서 하기는 힘듭니다. 가능한 한 현지에서의 작업을 줄이고, 가능한 빨리 옷을 전달하기 위해 배에 선적하기 전에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른 수요

세계에는 다양한 나라와 지역이 있습니다. 더위, 추위, 건조 정도, 사계절의 유무,

평균적인 체형의 차이, 독자적인 문화와 종교적 습관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에서는 특정한 동물의 그림이 들어 있는 옷은 거절당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색이 인기가 있다든지(혹은 싫어한다든지)하는 것은 사전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인접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옷의 수요가 전혀 다른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interview



**분류 협력회사
나카노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나카노 토시아스 씨**

'의·식·주' 중에서도 '의'가 맨 앞에 오듯이, 옷은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지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잊지말아야 할 것은 주는 쪽에서 '전달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쪽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하게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기후풍토, 종교 등을 잘 파악하고, 적절하게 옷을 분류하여, 받는 측의 수요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속시킬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분류작업의 흐름



매장에서 회수한 옷은 분별거점에 모아집니다. 동일본 지역만 해도 1일 4톤 트럭 2~3대분의 옷이 모여집니다.

리사이클 전문업자의 협력을 얻어, 우선 입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고, 입을 수 있는 것은 남녀, 계절, 아이템, 사이즈 등의 기준에 따라 12종류로 분류, 정리합니다.

선별한 옷은 전용장치로 압축. 압축 후에는 튼튼한 천으로 포장하고, 그 주위를 굵은 와이어로 단단히 묶습니다.

엄중한 포장은 옷이 해어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운송 중 옷을 빼가거나 옷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엄마와 아이의 몸을 지키는 옷 '잠비아의 농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정말로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옷을 전달한다.
2011년 봄에는 잠비아의 진료소를 방문하여 엄마와 유아의 옷을 중심으로 배부하였습니다.

17살의 노라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동안 길을 걸어, 출산전 검진을 받기 위하여 진료소에 찾아왔습니다. 이 곳에 온 것은 뱃속 아기의 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유니클로에서 보내준 옷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노라씨는 이번이 첫 임신입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나라, 잠비아의 마사이티군(郡)은 도쿄의 3배의 면적에 12만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의사는 단 1명이고, 조산사는 12명 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유아사망율은 일본의 약 43배, 세계평균의 약 2배에 달합니다>(*조이세프 공식 홈페이지 자료).

유니클로의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 의류지원 파트너인 국제협력 NGO 조이세프(*)는 이곳 잠비아 등 개발도상국의 임신부와 여성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라씨가 참가한 출산전 정기검진도 그 일환입니다. 유니클로는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옷을 난민캠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잠비아의 검진 장소와 같은 일상생활의 장에서도 유아들과 엄마들을 위한 의류를 참가자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유아의 생명을 빼앗는 커다란 원인의 하나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병입니다. 말라리아는 학질모기를 매개로 하여 병원체가 체내에 침입함으로써 발병합니다. 즉, 가능한 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아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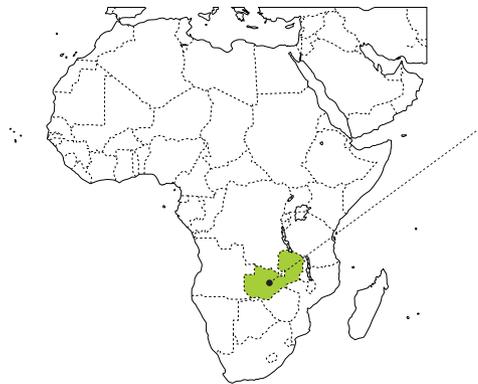
잠비아의 농촌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두꺼운 털실로 만든 모자와 스웨터, 양말 등을 마련하여, 아기에게 입힙니다. 모기에 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한 옷을 살 수 있는 현금 수입이 없는 부모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라씨를 비롯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은 검진 장소에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지식을 익히고, 태어날 아기와 자신을 위해 준비된 옷을 받아 들고 귀가합니다. 바른 지식, 그리고, 신체를 지키기 위한 옷. 이 두 가지가 잠비아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옷의 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이세프 (JOICFP= Japanese Organiz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amily Planning, 재단법인 가족계획국제협력재단). 1968년 설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의 여성·임산부를 위한 모자보건 국제협력을 하는 NGO.



잠비아 공화국
수도는 루사카. 인구 약 1,300만 명(2009년)
(자료 출처: 외무성 홈페이지).
1인당 GDP 1221 달러(2010년)
(자료 출처: IMF Data and Statistics 2010년).
세계 3대 폭포의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가 있다.



유니클로의 옷을 입고 옷은 얼굴로 얘기하고 있는 노라씨. '출산하는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면 좋겠어요.'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의 궤적 이제까지의 길, 그리고, 앞으로의 길

옷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유니클로의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유니클로의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은 2001년 후리스 리사이클 활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리사이클 대상을 유니클로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상품으로 확대하여, 현재, 일본과 한국의 모든 점포에서 1년 내내 회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의 나라들에서도 순차적으로 회수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회수한 옷은 총 970만 점. 그 중에서 약 170만 점을 UNHCR(유엔난민기구)을 통하여, 네팔, 에티오피아, 그루지야, 파키스탄 등 13개국에 기증했습니다(2011년 2월 말 현재). 한편, 세계의 난민·피난민 수는 약 3,600만 명. 옷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저희들의 활동은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난민캠프를 방문할 때마다,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이 현재 잘 되고 있는 부분과 아직은 부족하여 더욱 개선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2011년 2월, 더욱 넓은 분야에서의 난민·피난민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UNHCR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습니다. UNHCR과는 이제까지도 수요조사 및 적절한 수송에 있어 협력하며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2009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와 유명인사들이 디자인한 T셔츠를 전세계의 유니클로에서 판매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전개. 수익의 일부는 UNHCR에 대한 기부와 난민지원활동에 쓰입니다. 2011

년도에도 각계의 저명인사, 아티스트,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상품이 소진되는 시점에서 판매종료).

향후 UNHCR과의 연계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기증국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본에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신 분들에게 유니클로 점포에서 인턴십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옷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1년도에 참가한 아티스트와 유명인 (일본어 발음순, 경칭 생략)



이시카와 나오키



오다 카즈마사



쿠니에다 신고



쿠로키 메이사



사토 유타카



노구치 켄



미야모토 에미리



J-FUN Youth

www.uniqlo.com/kr

PHOTOGRAPHER'S REPORT

카미오카 신스케 // shinsuke kamioka

옷을 통해 마음이 통한다



2008년 에티오피아 시벨바 난민캠프에서

유니클로와 동행하여 2007년부터 세계 각국의 난민캠프를 방문해 왔다.

위의 사진은 2008년에 방문한 에티오피아의 난민캠프. 일당독재 체제인 이웃 나라 에티오피아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들이 머물고 있다. 난민 남성 중 약 80%가 탈주병이라고 한다. 가진 것 없이 맨몸으로 탈출한 그들의 대부분은 군복을 입은 채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난민캠프 안에 불필요한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었다. 그러한 그들이 군복을 벗고 유니클로의 옷을 입었다. 그러자 주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경직되어 있던 그들 자신도 생기있는 표정으로 바뀌었다.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던 벽을 옷이 허물었다. 옷의 위력을 피부로 느낀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실감한 것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모두 같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습관에 따른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인간의 바탕에 있는 기쁨과 슬픔은 어디든 같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새 옷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은,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이곳 일본에서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본에서 먼 여정을 거쳐 옷이 전달되었을 때, 그 옷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옷을 얻었다는 기쁨과 함께 일본에서 보내온 정성스런 마음도 확실히 전달받았다고 생각한다. 갖가지 어려움이 따를 때도 있지만, 마음은 전해진다. 옷을 통하여 사람들이 이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왔다. 그리고, 때로는 옷이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면도 만났다. 예를 들면, 에티오피아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커다란 역할을 한 것처럼.

카미오카 신스케 1974년생. 광고, 잡지, 패션 카탈로그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활동 중.
<http://www.skamioka.com> / <http://www.mili.jp>

저희가 생각하는 '일본에서, 세계에서, 지금, 옷이 할 수 있는 일'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시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유니클로의 비즈니스도,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도, 지진에 대한 지원활동도,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데 있어 소중히 해야 할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니클로의 비즈니스는 '고객의 입장에 입각' 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상품개발에서 생산, 매장에서의接客,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일관된 것입니다.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에 있어서도, 난민캠프 등의 기증처에 어떠한 수요가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의 상황에 맞추어 옷들을 꼼꼼하게 선별하여,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옷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지원활동은 피해지역이 어떠한 상황이며, 어떤 의류를 가장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나아가 피해지역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배부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피해지역민 여러분을 대할 것인지 사내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하며 실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반성할 점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이를 반영하여 다시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지원활동에서도 일상의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현장, 현물, 현실'을 중시하는 유니클로의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지원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모자라는 점, 반성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직원들이 그 경험을 통하여 다시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옷에는 정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상품 리사이클 활동도,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지원활동도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큰일은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세계에서, 지금, 옷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문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